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 따른 불어어휘의 연구*

—어휘함수 개념의 활용을 중심으로—

홍 재 성
(불어불문학과 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Mel'cu k과 그 연구진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불어 결합·설명사전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이하 DECFC로 약칭, 일반적인 지칭으로는 DEC.)이 보여주는 불어어휘기술의 이론과 방법의 한 면을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DEC는 I. Mel'cu k, A.K. Zholkovsky 그리고 J. Apresjan이 1960년대에 러시아어 자료를 바탕으로 제창한 의미·텍스트 대응 이론(또는 모형) *théorie(modèle) Sens-Texte*(이하 MST로 약칭)에서 의미부 *composante sémantique*의 핵심성분이자 독립된 어휘부 *lexique*를 구성하는 일종의 전산어휘자료체 *base de données lexicales*이다. DEC는 '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며 인쇄된 형태의 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으나, 일반 독자를 위한 언어사전이 아니고, 엄격히 MST의 틀에 따라 이론적으로 구성된 어휘부—자연언어 어휘요소에 대한 언어학적인 표상—인 것이다. DEC는 일반사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표현의 산출 *production*을 위한 특수한 적극 사전 *dictionnaire actif*의 일종으로 특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MST는 인간언어의 핵심적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표상모형인 점에서 생성문법을 위시한 현대의 다른 주요 언어모형에 비견될 수 있는데,¹⁾ 근래까지도 널리 알려지지는 못한 비주류 언어학의 한 분파라 할 수 있다. 복수의 표상층위 *niveau de représentation*를 가정하지만 의미론에 기초하고, 종속문법모형을 수용한 MST는, 특히 성분구조문법을 흡수한, 통사론 중심의 생성문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그리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계 내외에서 어휘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짐에 따라, 전형적으로 어휘부 중심적인 언어표상모형인 M. Gross의 어휘 문법 *lexique-grammaire*²⁾ 과

* 이 글은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1) MST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 위상을 일반언어학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는, MST를 현대의 주요 통사·의미이론과 대조시킨 Nakhimovsky(1990)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어휘·문법은 M. Gross가 Z. Harris의 변형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시킨 어휘부 중심의 언어 기술모형이다. 의미론에 기반을 둔 MST와 달리, 어휘부와 통사부를 통합하는 전산어휘부 구

더불어, 통사부 중심이론에 대한 대안, 자연언어처리 *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 영역에의 기여, 또는 언어교육이나 일반 언어사전 편찬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 등으로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³⁾

MST의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집중적인 어휘기술의 대상이 된 언어는 러시아어와 불어이다.⁴⁾ 특히 불어의 경우는, 모두 3권의 DECFC를 통해 모두 328개의 어휘가 분석되었는데,⁵⁾ 다루어진 어휘의 총수는 대단한 양이 아니라할 지라도, 개개어휘에 대한 기술의 내용은, 어휘 문법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어떠한 어휘표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그 형식화된 기술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바로 이러한 Mel'čuk의 어휘연구를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 DECFC의 총체적 분석과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우선 DEC의 가장 독창적인 국면의 하나인 어휘함수 *fonction lexicale* 개념을 활용한 어휘정보의 체계화에만 국한하여 논의해 보려한다. 우리의 목적은 FL 개념에 의거한 불어 어휘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여, DEC의 연구성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방법을 한국어 어휘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데에도 있다.

II. 의미·텍스트 대응모형과 결합·설명사전

MST의 전체적 윤곽은 Mel'čuk의 여러 논저에서 상세히 제시되었고, 또한 DEC의 구성 역시 소개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FL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을 지극히 간략

축을 지향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불어를 비롯한 몇몇 언어를 대상으로 기존의 언어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거나, NLP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수용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어휘정보를 형식화하였다.

- 3) Mel'čuk의 연구에 대한 평가의 한 예로, MST 계열의 언어학자가 아닌 인공지능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로 인용해 둔다.

“A propos du modèle de Mel'čuk, nous dirons qu'il nous semble être le porte-parole d'un mouvement général de la linguistique contemporaine qui considère comme de plus en plus importante l'influence du lexique sur la syntaxe et la sémantique. [...] le modèle 'Sens-Texte' est le seul à formaliser le phénomène de la 'co-occurrence lexicale restreinte', qui fonctionne de façon un peu différente des expressions idiomatiques, plus figées.” G. Sabah(1988). p. 153.

- 4) 러시아어 DEC는 1984년에 간행되었다(Mel'čuk I.A. and A.K. Zholkovsky.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of Modern Russian*. Vienna: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992p). 이밖에 영어와 중국어의 DEC적 표상예를 J. Steele(1990)에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언어가 DEC의 틀로 다루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J. Steele(1990) 및 DECFC III에 자세한 문헌이 소개되어 있다.
- 5) 이것은 대표제어 *vocable*의 총수이다. DEC에서는 전통적 의미로 다의어적 성격을 갖는 대표제어의 경우, 그 대항목 *super-article* 내에서 각각의 구별되는 의미 *acception*가 하나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의 단위인 어휘소 *lexème*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출간된 3권의 DECFC에서 기술된 *lexème*의 수효는 *vocable*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하게 언급하기로 한다.⁶⁾

MST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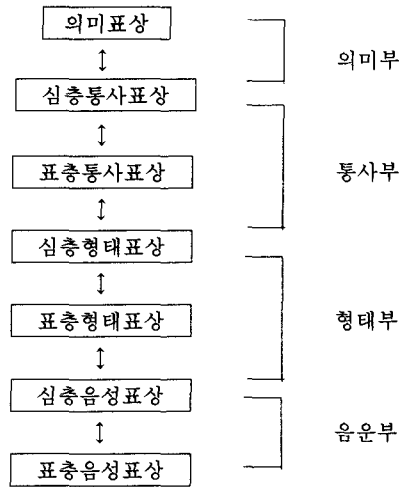
가. Mel'čuk의 의미 텍스트 대응이론 시각에서 자연언어는, 낱말이 열거할 수 있는 무한한 의미sens의 집합과 역시 낱말이 열거할 수 있는 무한한 언어표현texte의 집합 사이의 다대다 multi-multivoque 대응 application(mapping)으로 특징지어진다. 한 언어표현은 다양한 의미해석을 지닐 수 있으며(중의성ambiguïté), 또한 한 의미는 다양한 언어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다(환언성paraphrase). 따라서 의미·텍스트의 대응은 일대일의 대응이 아니다.

나. 자연언어를 특징짓는 이와 같은 대응은 기능적 언어모형(modèle fonctionnel 또는 modèle cybernétique)에 의해 표상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이론적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MST이다. MST가 해명하려는 핵심적인 자연언어의 국면은 환언관계 paraphrase에 의해 상관지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언어표현 사이의 의미적 등가성의 존재에 있다. 환언관계에 놓이는 언어표현 사이에서 관찰되는 의미적 불변체 invariant sémantique가 바로 언어학이 표상하여 문제삼는 의미가 된다. MST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에 기반을 둔, 자연언어의 가능한 환언관계의 표상과 해명을 중심목표로 하는 형식체계이다.

다. 의미와 텍스트의 대응은 매우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어서 자연언어의 총체적 표상모형으로서의 MST는, 의미와 텍스트의 언어학적 표상인 의미표상 représentation sémantique과 음성표상 représentation phonétique 사이의 직접적 대응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2개의 중간표상층위: 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형태표상 représentation morphologique을 가정하고, 의미표상을 제외한 세 표상층위는 다시 심층/표층의 두 하위층위로 분할이 되어 모두 7개의 중간적 표상층위 niveau de représentation를 가정하게 된다.

또한 MST는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4개의 부(문) composante으로 구성되는데, 의미부와 음운부를 제외한 통사부와 형태부는 각기 심층/표층의 두 하위부분으로 분할된다. DEC는 의미부의 핵심적인 구성성분으로 의미부/통사부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부 lexicque의 기능을 갖는다. MST의 각 층위의 언어표상은 의미망 réseau(의미표상), 나무그림 arbre(통사표상), 또는 연쇄 chaîne(형태표상) 등의 수학적 형식언어로 구현된다. 각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접하는 언어표상 사이의 대응을 맺어주는 일정수의 조작 opération을 내포하고 각 opération은 필요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미부와 통사부의

6) MST/DEC를 전체적으로 소개한 Mel'čuk의 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한해서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Mel'čuk(1988a), Mel'čuk(1993)과 DECFC 1에 수록된 해설 논문을 이용하였다.



핵심적인 규칙은 DEC에 수록된 어휘정보에 의거하여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들이다. 특히 MST가 가장 중시하는 의미부의 환언체계는 FL을 사용하는 규칙들로 구성되며, 후행표상의 구성에는 FL의 어휘값의 산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표상된 어휘부가 바로 DEC인 것이다.⁷⁾

MST에 의거한 자연언어의 총체적 기술의 필수적 일부로 고안된 DEC는, 바로 MST가 지지하는 언어학적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 언어에 속하는 어휘요소에 대한 가능한 완벽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고자 한다. 인쇄된 사전의 형식을 취하는 DEC의 각 항목은 다섯 개의 구획zone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의미정보구획 zone sémantique, 통사정보구획 zone de combinatoire syntaxique, 어휘결합정보구획 zone de combinatoire lexicale이 중심이 되고, 이 부분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과 그 표상방법이 바로 DEC의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의미정보구획에는 표제어의 정의를 비롯한 의미정보가 수록되고, 통사정보구획에는 표제어가 지시하는 어휘요소의 통사적 실현 양상이 지배도식 schéma de régime(government pattern)이라 칭하는 도표를 중심으로 세밀히 기록된다. 어휘결합정보구획에는 표제어 어휘요소가 다른 어휘요소와 맺을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어휘대응 또는 결합관계가 체계적으로 표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FL 개념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DEC의 항목은 하나의 어휘단위가 얼마나 복잡다단한 언어정보의 복합

7) MST 내에서의 DEC의 위상과 기능을 다른 언어표상 모형의 어휘부와 비교·분석하여 그 이론적·기술적 타당성, 또는 장·단점 등을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는 일인데,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글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FL이 지닌 일반적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체인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한 언어가 기능하는 모습을 해명하고자 하는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 어휘단위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MST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Ⅲ. 어휘함수

1. 어휘함수의 개념

Mel'cu의 DEC가 보여주는 어휘기술의 가장 독특한 점의 하나는 어휘함수 *fonction lexicale*(이하 FL로 약칭)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휘단위 사이의 다양한 대응관계를—현재까지의 성과로 보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단히 철저한 표상을 시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FL은 한 어휘단위가 그것이 속한 언어의 다른 어휘요소와 맺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Mel'cu가 MST의 틀 내에서 고안해 낸 개념이다. 그것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대응관계(또는 종속관계) f 를 지칭하는데, f 는, f 에 대해 논항 *argument*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어휘단위 L 에 f 의 값 *valeur*인 일련의 어휘단위 $f(L)$ 을 대응시킨다.

각 FL은 일반적으로 매우 추상적인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공백에 가까운 희박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심층적인 의미 통사론적 역할/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très*나 *beaucoup* 같은 어휘가 표현하는 /높은 정도나 강도/는 하나의 FL을 이룬다. FL의 논항(또는 핵심어 *mot clé*⁸⁾)은 이 의미가 실현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어휘요소이다. 다시 말해, /높은 정도나 강도/는 속성이나 행위, 사태 등 술어 *prédicat*의 한 양태를 나타내므로, 바로 속성이나 행위, 사태 등을 의미하는 *malade*, *blessé*, *pleurer*, *pluie* 같은 어휘요소가 FL /높은 정도나 강도/의 논항이 될 수 있다. FL의 값은 논항과 대응되어(또는 논항에 종속되어) FL을 실현시킬 수 있게 선택되는 어휘요소가 된다. *malade*에 대해서는 *très/gravement*, *blessé*에 대해서는 *gravement/grièvement*, *pleurer*에 대해서는 *comme une madeleine*, *à chaudes larmes*, *pluie*에 대해서는 *grosse/torrentielle*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언어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휘적 종속관계가 FL로 기술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용사 + 명사의 어휘연쇄나, 동사 + 목적보어의 어휘연쇄는 각각의 연쇄를 이루는 두 어휘요소 사이의 규칙적인 대응관계가 종속관계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L을 구성하지 않는다.

i) *nouveau mari*, *nouveau professeur*

ii) *lire un roman*, *lire un poème*

8) 또는 *lexème clé*로 지칭되기도 한다.

주어진 어휘 사이의 종속관계가 FL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⁹⁾

정의1: 어휘적 종속관계 f 는 반드시 다음의 경우에만 어휘함수가 된다. 언어 L 에 속하는 어휘요소 L_1 과 L_2 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이던 간에 $f(L_1)$ 과 $f(L_2)$ 가 모두 존재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어휘값 $f(L_1)$ 과 $f(L_2)$ 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의미와 심층통사기능의 면에서 각각 L_1 과 L_2 에 대해 (거의) 동일한 관계를 갖는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frac{L \in f(L_1)}{L_1} = \frac{L \in f(L_2)}{L_2}$$

(나) 적어도 일부의 논항에 대해서만은 $f(L_1)$ 과 $f(L_2)$ 가 동일하면 안 된다.

조건 (가)는 주어진 어휘적 종속관계가 잠재적으로 FL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필요조건만을 명시하는 것이다. i), ii)의 어휘결합 예는 (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frac{\text{nouveau}}{\text{mari}} = \frac{\text{nouveau}}{\text{professeur}} = \dots$$

이러한 종속적 어휘결합을 FL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 (나)가 필요하다.

조건 (나)는 주어진 어휘적 종속관계를 실질적인 FL로 특징짓게 해 준다. 그것은 언어 L 에서 FL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f 의 값이 논항에 따라—적어도 부분적으로는—어휘적으로 달리 실현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조건은 FL이 한 언어 내에서 두 어휘요소 사이의 일반적인 의미·통사적 관계가 어휘적으로는 특정하게, 제한적인 공기관계 *co-occurrence restreinte*의 양상으로 실현되는 국면을 표상하도록 한다. 위에서 예로 든/높은 정도나 강도/가 FL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très/gravement malade* 등의 어휘결합이 바로 정의1에 적합한 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text{ㄱ. } \frac{\text{gravement}}{\text{malade}} = \frac{\text{grièvement}}{\text{blessé}} = \frac{\text{comme une madeleine}}{\text{pleurer}} = \frac{\text{torrentielle}^{10)}}{\text{pluie}}$$

$$\text{ㄴ. } \text{gravement} \neq \text{grièvement} \neq \text{comme une madeleine} \neq \text{torrentielle}$$

Mel'čuk은 라틴어에서 차용한 어휘를 약호화하여 FL에 명칭을 부여했는데, FL/높은

9) Mel'čuk(1993) p. 86.

10) 물론, ㄱ.이 보여주는 비례관계가 수학적 의미에서 엄격히 동일한 관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정도나 강도/는 **magnus(grand)**로부터 고안된 **Magn**라는 명칭으로 기술된다. 고안한 **FL**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된다.

$$f(X) = Y$$

[f는 FL, X는 그 논항, Y는 X를 논항으로 할 때의 f의 값]

FL Magn의 개념을 활용하면, 관례적으로 연어 collocation로 지칭되어 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어휘연쇄/제한적 어휘결합의 예들이 공통된 의미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있게 관계맺어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DEC에 표상된 주요한 어휘정보의 하나가 된다.

Magn (admirer) = énormément, profondément, beaucoup

(aimer) = à la folie, passionnément, ardemment

(connaître) = à fond, comme ses poches

(crier) = à tue-tête, comme un putois

(critiquer) = vertement

(haïr) = à mort, mortellement, comme la peste

(pleuvoir) = à verse, comme vache qui pisse

(presser) = comme un citron

(promettre) = fermement

(remercier) = vivement, chaleureusement

(savoir) = par coeur, sur le bout du doigt

Magn (amour) = fou, ardent

(attention) = soutenue

(bruit) = infernal, étourdissant

(désir) = ardent

(faim) = terrible, de loup

(interrogatoire) = serré

(mémoire) = prodigieuse, excellente, étonnante, d'éléphant

(nécessité) = impérieuse

(prix) = haut, élevé

(résistance) = acharnée

등가관계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언어현상의 기술에 있어서는 비례관계의 설정이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본다.

(*satisfaction*) = *grande, forte*

Magn (*bête*) = *à pleurer, comme ses pieds*

(*heureux*) = *comme un poisson dans l'eau*

(*rapide*) = *comme l'éclair*

(*sourd*) = *comme un pot*¹¹⁾

그런데 FL은 엄격히 수학적 의미의 함수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FL이 주어진 논항에 대해 항상 일정한 하나의 어휘값만을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어휘값을 대응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아닌, 일대다 uni-multivoque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는 FL의 예는 한·두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몇몇 FL의 예를 더 인용해 본다.¹²⁾

Figur (*colère*) = *vague [de ~], feu [de la ~]*

Oper₁ (*envie*) = *éprouver, ressentir, avoir*

Sing (*vent*) = *coup, saute, rafale [de ~]*

FinFunc₀ (*peur*) = *s'évanouir, dissiper*

이 점에서 FL이 넓은 의미의 대응관계 *correspondance*에 해당하지만, 대응관계는 언어학 술어로 폭넓게 여러 경우에 쓰이고 있으며, MST의 논의에서는 이미 관계적으로 함수라는 술어를 써왔기 때문에, Mel'čuk은 문제의 어휘관계를 계속 FL로 지칭한다. 우리도 Mel'čuk을 따라 FL을 어휘함수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다.

2. 어휘함수의 유형

Mel'čuk의 논의에서 보면, 인간 언어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FL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립쌍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표준 어휘함수 FL standard

11) 영어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Magn (*argument*) = *strong, weighty*

(*deaf*) = *stone*

(*eater*) = *big, hearty*

(*escape*) = *narrow*

(*liar*) = *arrant*

(*patience*) = *infinite*

Magn (*rain*) = *heavy*

(*smoker*) = *heavy*

(*thirst*) = *unquenchable*

(*thin*) = *as a rake*

(*bleed*) = *profusely*

(*rely*) = *heavily*

12) 여기 인용된 FL의 의미에 대해서는 26쪽 3.의 설명을 볼 것.

비표준 어휘함수 FL non-standard

- (2) 단순 어휘함수 FL simple
 - 복합 어휘함수 FL complexe
- (3) 계열적 어휘함수 FL paradigmatique
 - 통합적 어휘함수 FL syntagmatique

표준 어휘함수/비표준 어휘함수

우선 (1)의 구별을 살펴보자. 모든 FL은 표준 FL과 비표준 FL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분은 f가 적용될 수 있는 어휘요소(논항)의 범위와 f가 가질 수 있는 어휘값의 범위에 따른 것이다. 좀더 엄밀하게 표준 FL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¹³⁾

정의2: 어휘함수 f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표준 FL이 된다.

- (ㄷ) f는 많은 수의 어휘요소(논항)에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f는 많은 다른 의미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의미적 결합가능성의 폭이 넓다.
- (ㄹ) f는 많은 다양한 어휘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 f는 논항에 따라 가능한 한 서로 다른 많은 값을 갖는다.

정의2에 의하면, Magn는 바로 전형적인 표준 FL의 예가 된다. 정의2가 적용되지 않는 FL은 모든 비표준 FL이다. 예를 들어 불어에서/크림이 든 additionné de crème/은 정의1에 의해서 하나의 FL이 된다.

- (i) $\frac{\text{crème}}{\text{café}} = \frac{\text{à la crème}}{\text{fraise}}$
- (ii) crème ≠ à la crème

그러나 이 FL은 의미가 너무 특수하고 따라서 의미적 결합가능성의 폭은 지극히 제한되어 조건 (ㄷ)을 위반할 뿐 아니라, f의 값이 될 수 있는 표현도 둘 뿐이어서 조건 (ㄹ)도 위반하므로, 비표준 FL로 분류될 것이다.¹⁴⁾ 불어에서 비표준 FL의 또 다른 예로 café noir, thé nature, du whisky sec과 같은 표현에서 수식어 형용사가 표현하는 의미/sans ajout de produit modifiant le goût/를 들어볼 수 있다.¹⁵⁾ 이 역시 정의1에 따라 FL이 되는데, 정의2에 의한 표준 FL로 특징지어질 수는 없다.

Mel'čuk의 어휘기술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준 FL인데, Mel'čuk은 다양한 언어에서 그 실현을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표준 FL의 수가 60여 개에 이르는

13) Mel'čuk(1993) p. 87.
 14) Mel'čuk(1988a) p. 32.
 15) Mel'čuk(1993) pp. 87-88.

것으로 본다. 한편 비표준 FL은 한 언어 내에서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¹⁶⁾

단순 어휘함수/복합 어휘함수

어휘함수는 또한 그 구성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단순 FL과 복합 FL로 나뉜다.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최종적 단위로 설정되는 FL이 단순 FL이고, 이 단순 FL이 규칙에 의거하여 합성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FL이 복합 FL이다. 앞에서 언급한 표준 FL/비표준 FL의 구분에 이 구분을 교차적용시키면 단순표준 FL, 복합표준 FL, 단순비표준 FL, 복합비표준 FL의 부류를 설정할 수 있다.

Magn는 전형적인 단순표준 FL의 예가 된다. 여기에 또 다른 단순표준 FL인 Anti가 결합하면 복합표준 어휘함수 AntiMagn을 구성한다.

Anti는 반의관계 *antonymie*에 있는 두 어휘요소를 대응시키는 FL이다.

*Anti (respect) = irrespect*¹⁷⁾

Anti와 Magn가 결합된 AntiMagn는 /낮은 정도나 강도/를 뜻하는 복합표준 FL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iMagn (étonnement) = léger
(vent) = doux, faible
(espoir) = faible, timide, confus
(changement) = petit, léger
*(changer) = à peine, peu, légèrement*¹⁸⁾

이외에도 Anti는 여러 유형의 복합표준 FL을 구성할 수 있다.

단순 FL에는 지수exponent나 지표indice가 첨가되어 좀더 세분된 의미·통사관계를 명시할 수 있다. Magn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시간적 차원에서의 높은 강도와 양적인 차원에서의 높은 강도가 구별될 수 있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의 높은 강도는 핵심어의 제1(의미)논항에 관계된다는 점을 지표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이다.

Magn^{temps} (joie) = durable

16) Mel'čuk(1993) p. 88

17) 영어의 예 : *Anti (attach) = detach*
(hope) = despair

18) 영어의 예 : *AntiMagn (applause) = thin*
(argument) = weak
(eater) = light

Magn^{temps} (objection) = constante, continuelle

Magn^{temps} (vie) = longue

Magn₁^{quant} (joie) = collective

Magn₁^{quant} (impression) = unanime

Magn₁^{quant} (panique) = générale

단순 FL 중에는 복합 FL의 성분으로만 실현되는 FL도 있다. 과정의 의미를 표현할 때 강도의 강하나 약화를 뜻하는 Plus, Minus, 기동/지속/종결 등 사태의 상적 전개의 국면을 표현하는 Incep, Cont, Fin 등이 그 예가 된다. 이들 FL은 상태의 변화 등 과정의 의미를 기술하는 Pred—흔히 형용사에 첨가되는 동사파생접사의 의미에 대응한다—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 FL을 구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IncepPredMinus (joie) = faiblir

IncepPredPlus (joie) = grandir

IncepPredMinus (vent) = se calmer, mollir

IncepPredMinus (haine) = se refroidir

IncepPredMinus (vitesse) = diminuer, décroître

복합 FL은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Anti-, 또는 Incep- 등과 같이 단순 FL의 합성에 의해 구성되며 하나의 논항(표제어)을 갖는 합성 FL이 그 첫째 유형이다. 두번째 유형은 두 개의 논항을 갖는 특수한 복합 FL로서, 몸짓 등 신체부위의 움직임이나 변화로 나타나는 내적인 감정을 뜻하는 일종의 준관용표현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인 언어표현을 FL의 틀로 형식화하기 위해 고안된 FL이다.

다음은 ‘(놀라서) 말이 안 나오다’, 또는 ‘(무서워서) 머리털이 곤두서다’ 등 한국어 표현에 대응되는 불어표현을 이러한 혼성 FL로 표상한 예이다.

Stop (parole) – Sympt₂₃ (étonnement) = être muet [d’étonnement]

Excess (dents) – Sympt₂₃ (colère) = grincer des dents [de colère]

**Excess (cheveux) – Sympt₁₃ (horreur) = ses cheveux se dressent
[d’horreur]**

혼성 FL의 제2성분은 주로 감정이나 심리상태의 신체적 표현을 의미하는 FL Sympt이다. 이때 Sympt은 신체부위(1), 신체부위의 ‘소유주’(2), 감정(3)을 논항으로 취하는 3항술어로 분석되고 지수(ij)는 이 의미논항의 실현양상을 나타낸다. Sympt은 혼성 FL에만 사용되는 단순 FL이다. 제1성분으로 실현되는 FL Stop은 /기능의 정지/, FL Excess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순 FL이다.

계열적 어휘함수/통합적 어휘함수

FL은 FL의 논항과 그 함수값으로 제시되는 어휘표현 사이의 구조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계열적 FL과 통합적 FL로 구분되기도 한다. 대응되는 어휘요소 사이의 관계가 계열적 *paradigmatique*인가 통합적 *syntagmatique*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기준에 의거하면 동의관계의 FL *Syn*, 전환관계의 FL *Conv_{ijk}*, 반의관계의 FL *Anti* 등은 계열적 FL로 분류되고, *Magn*나 *Oper_i*, *Func_i* 등은 전형적인 통합적 FL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FL은 구조적 관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분화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FL을 구조적 관계나 또는 다른 의미적 속성에 근거해서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¹⁹⁾

FL은 이밖에도 논항의 어휘범주에 따라 편의상 동사 FL, 명사 FL, 또는 형용사 FL 등의 분류가 있을 수 있다.

3. 단순표준 FL의 몇 가지 예

이 자리에서는 60여 개에 달하는 단순표준 FL의 완전한 목록과 정의를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 흥미있고 중요한 예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가. *Figur*: 표제어와 같은 뜻을 표현하는 상투적 비유

Figur (fumée) = rideau [de ~]

(colère) = vague [de ~]

(envie) = démon, serpent [de l' ~]

(haine) = feu [de la ~]

*(jalousie) = démon [de la ~]*²⁰⁾

나. *Sing*: 명사가 지시하는 현상이나 개체의 일부 또는 날개의 단위에 대한 관례적 표현

19) Steele and Meyer(1990)는 60여 개의 단순표준 FL을 엄격히 분류하고 체계화한 시도인데, 계열적 FL/통합적 FL의 구분을 가장 기본적인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Mel'čuk(1993)은 계열/통합의 두 구조적 관계에 각각 다른 공통의 의미특성을 대응시키면서 이 구분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 분류의 내용에 있어서는 두 문헌이 큰 편차를 보인다. Steele and Meyer(1990)는 *Pred* 및 *Oper_i*, *Func_i*를 비롯한 몇개의 FL - 주어/동사, 목적어/동사 사이의 의미 통사관계에 기초한 FL - 만을 통합적 FL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FL을 계열적 FL로 한데 묶는 반면, Mel'čuk(1993)은 전통적 어휘관계를 형식화하는 *Syn*, *Conv*, *Anti* 및 파생관계를 기술하는 FL 등 20개 정도만을 계열적 FL로 특징짓는다.

20) 영어의 예: *Figur (day) = light [of ~]*

Sing (<i>ail</i>) = <i>gousse, tête</i>	Sing (<i>forêt</i>) = <i>arbre</i>
(<i>alcool</i>) = <i>goutte</i>	(<i>neige</i>) = <i>flocon</i>
(<i>association</i>) = <i>membre</i>	(<i>nourriture non liquide</i>) = <i>bouchée</i>
(<i>avoine</i>) = <i>flocon</i>	(<i>paille</i>) = <i>brin</i>
(<i>blé</i>) = <i>grain</i>	(<i>pain</i>) = <i>miette</i>
(<i>brume</i>) = <i>flocon</i>	(<i>papier</i>) = <i>feuille</i>
(<i>colère</i>) = <i>accès [de ~]</i>	(<i>soupe</i>) = <i>gorgée</i>
(<i>eau</i>) = <i>goutte</i>	(<i>troupeau</i>) = <i>tête</i>
(<i>flotte</i>) = <i>navire, bateau</i>	(<i>vent</i>) = <i>coup, saute, rafale</i>
(<i>folie</i>) = <i>crise</i>	[<i>de ~</i>] ²¹⁾

다. Mult : 떼, 무리, 개체의 규칙적인 모임

Mult (<i>abeille</i>) = <i>essaim</i>	Mult (<i>île</i>) = <i>archipel</i>
(<i>auto</i>) = <i>parc</i>	(<i>loup</i>) = <i>meute</i>
(<i>banane</i>) = <i>régime</i>	(<i>montagne</i>) = <i>chaîne</i>
(<i>brebis</i>) = <i>troupeau</i>	(<i>oiseau</i>) = <i>volée</i>
(<i>chien</i>) = <i>meute</i>	(<i>poisson</i>) = <i>banc</i>
(<i>cycliste</i>) = <i>peloton</i>	(<i>raisin</i>) = <i>grappe</i>
(<i>élément</i>) = <i>ensemble</i>	(<i>sanglier</i>) = <i>harde</i>
(<i>gens</i>) = <i>foule</i>	(<i>voyou</i>) = <i>bande</i> ²²⁾
(<i>grue</i>) = <i>vol</i>	

르. Culm : 상태의 절정

Culm (<i>colère</i>) = <i>paroxysme [de la ~]</i>
(<i>gloire</i>) = <i>apogée, sommet [de la ~]</i>
(<i>joie</i>) = <i>comble [de la ~]</i> ²³⁾

(*despair*) = *depths [of ~]*

(*reason*) = *light [of ~]*

(*remorse*) = *pangs [of ~]*

21) 영어의 예 : Sing (*dust*) = *bleck, peck*

(*rain*) = *drop*

(*salt*) = *grain*

(*soap*) = *cake, bar*

22) 영어의 예 : Mult (*dog*) = *pack*

(*fish*) = *school, shoal*

ㄴ. $Oper_i$: 표제어가 술어명사 *nom prédicatif*일 경우, 이 술어명사가 목적보어(또는 제 1보어) 위치에 실현되는 단문에서 통사적 술어위치에 사용될 수 있는 동사어휘와 술어명사 사이의 관계를 형식화하는 FL이다. 다시 말해, 술어 *prédictat*가 명사어휘범주로 투영되어 목적보어 위치에 오고, 그 의미적 논항이 주어/제2보어의 통사적 위치에 분포되어 단문을 구성할 때, 동사 위치에 실현되는 어휘요소들이, 술어명사에 대한 $Oper_i$ 의 어휘값이 되는 것이다. 이들 동사들은 M. Gross의 어휘 문법에서는 기능동사 *verbe support*라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²⁴⁾ $Oper_i$ 의 동사는 생성문법에서 경동사 *light verb*로 지칭되는 동사와 부분적으로 대응된다.

$Oper$ 의 지수 i ($i = 0, 1, 2, 3$)는 주어위치에 오는 표제어의 의미적 논항을 표시한다. 제 1논항이 주어위치에 오면, $Oper_1$, 제 2 또는 제 3논항이 주어위치에 오면 $Oper_2$, $Oper_3$, 무논항 술어의 비인칭동사는 $Oper_0$ 로 표시된다.

$Oper_1$ (*aide*) = *prêter, accorder*

(*attaque*) = *monter*

(*attention*) = *faire, prêter*

(*conseil*) = *donner*

(*influence*) = *exercer*

(*opération*) = *faire*

(*question*) = *poser*

(*résistance*) = *opposer*

$Oper_2$ (*aide*) = *recevoir*

(*attention*) = *attirer*

(*conseil*) = *recevoir*

(*défaite*) = *essuyer*

(*opération*) = *subir*

(*résistance*) = *se heuter à*

$Oper_3$ (*promesse*) = *emporter, recevoir, obtenir*

$Oper_0$ (*vent*) = *faire [du ~]*²⁵⁾

23) 영어의 예 : *Culm (play) = climax [of a ~]*

(*storm*) = *height, peak [of the ~]*

24) 어휘·문법에 입각한 기능동사구문의 연구문헌은 다수가 있다. 우선은 홍재성(1993)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MST의 입장에서 어휘·문법의 기능동사 개념과 FL $Oper_i$ 를 대조분석한 Ramos 1991은 흥미있는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두 개념의 비교문제는 더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천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문 구문 내에서의 술어명사/동사 사이의 관계는 규칙적인 의미 · 통사관계인데, 그 어휘적 실현은 전형적인 연어 **collocation**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어휘의 대응은 어휘부에서 낱낱이 기록이 되어야 할 성격의 것인데, **DEC**의 **FL**은 바로 그 가능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DEC**에서는 **Oper_i**와 한 계열을 이루는 두 개의 **FL**을 더 설정하는데, 그것이 **Func_i**와 **Labor_{ij}**이다.

ㄴ. **Func_i** : 표제어인 술어명사가 주어위치에 와서 단문을 구성할 때 동사위치를 채우는 어휘요소들을 술어명사와 관계짓는 **FL**이다. 지수 *i*는 제1보어위치에 실현되는 의미논항의 표지이다. **Func₀**는 무논항 술어명사가 주어위치에 오는 자동사를 나타낸다.

Func₀ (*famine*) = *régner*

(*pluie*) = *tomber*

(*silence*) = *régner*

(*vent*) = *souffler*

Func₁ (*aide*) = *venir, provenir* [*de N*]

(*haine*) = *enflammer, brûler, dévorer, étouffer* [*N*]

ㄷ. **Labor_{ij}** : 표제어인 술어명사가 제2보어위치에 오고, 의미상 논항 *i*는 주어위치, 또 다른 의미상 논항 *j*는 목적보어위치에 실현되는 단문에 사용되는 동사를 어휘값으로 갖는 **FL**이다.

25) 영어의 예:

Oper₁ (*attention*) = *pay*

(*cry*) = *let out*

(*decision*) = *make, take*

(*definition*) = *formulate, give, lay down*

(*influence*) = *exert*

(*inquiry*) = *carry out, conduct, hold, make*

(*meeting*) = *have*

(*nap*) = *have, take*

(*offer*) = *make*

(*permission*) = *give*

(*pronouncement*) = *issue, make*

(*success*) = *achieve, attain, gain, have, score, win*

(*suicide*) = *commit*

(*support*) = *lend*

(*visit*) = *pay, make*

(*whack*) = *fetch*

Labor₁₂ (*analyse*) = *soumettre* [N à l'~]
 (*horreur*) = *avoir* [N en]
 (*liste*) = *porter, inscrire* [N sur la ~]
 (*location*) = *prendre* [N en]
 (*soin*) = *entourer* [N de ses ~ s]²⁶⁾

2항술어인 술어명사 C₀를 예로 든다면, Oper_i, Func_i, Labor_{ij}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도식화될 수 있다. C₁은 제1논항, C₂는 제2논항을 표시한다.

FL	주어	제1보어	제2보어
Oper _{1,2}	C ₁ C ₂	C ₀	C ₂ C ₁
Func _{0,1,2}	C ₀	ϕ C ₁ C ₂	ϕ C ₂ C ₁
Labor _{12,21}	C ₁ C ₂	C ₂ C ₁	C ₀

C₀가 modification일 때, 이들 FL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Oper₁ : *apporter*
 Oper₂ : *subir*
 Func₁ : *venir de, émaner de*
 Func₂ : *concerner*
 Labor₁₂ : *soumettre à*
 Labor₂₁ : ?

Oper_i, Func_i, Labor_{ij}에는 또다른 단순 FL Incep, Cont, Fin이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 FL을 구성한다.

IncepOper₁ (*attaque*) = *déclencher*
 IncepOper₁ (*forme*) = *prendre*

26) 영어의 예 : Labor₁₂ (*risk*) = *expose* [N to ~]
 (*torture*) = *subject* [N to ~]

- IncepOper₁ (*patience*) = *s'armer de*
- ContOper₁ (*influence*) = *garder*
- FinOper₁ (*influence*) = *perdre*
- IncepFunc₀ (*difficulté*) = *surgir*
- IncepFunc₀ (*vent*) = *se lever*
- IncepFunc₁ (*désir*) = *envahir* [N]
- IncepFunc₁ (*peur*) = *gagner, saisir* [N]
- FinFunc₀ (*doute*) = *s'envoler*
- FinFunc₀ (*vent*) = *se calmer*
- FinFunc₁ (*doute*) = *quitter* [N]

○. Real_i: 표제어가 목적보어위치에 와서 사태의 실현, 목표의 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FL. 지수 *i*는 주어위치에 오는 표제어의 의미논항을 표시한다.

- Real₁ (*colère*) = *décharger* [*sa ~ sur* N]
- (*problème*) = *résoudre*
- (*promesse*) = *accomplir, tenir*
- (*tentation*) = *succomber à*
- Real₂ (*conseil*) = *suivre*
- (*examen*) = *réussir à*
- (*ordre*) = *exécuter*
- (*piège*) = *tomber dans*²⁷⁾

스. Fact_i: 표제어가 주어위치에 와서 사태의 실현, 목표의 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FL. 동일한 의미를 실현시키는데, 표제어가 제2보어의 위치에 오면, FL Labreal_{ij}를 구성한다.

- Fact₀ (*rêve*) = *se réaliser*
- (*souhait*) = *s'accomplir*
- (*soupçon*) = *se confirmer*
- Fact₂ (*mémoire*) = *garder, retenir* [N]
- Labreal₁₂ (*mémoire*) = *conserver* [N *en ~*]

Real_i, Fact_i, Labreal_{ij}은 /사태의 실현/을 공통의 의미로 가지면서 각각 Oper_i, Func_i,

27) 영어의 예: Real₂ (*demand*) = *meet* [*~ s*]

- (*exam*) = *pass*
- (*hint*) = *take*
- (*joke*) = *get*

Son (<i>abeille</i>) = <i>bourdonner</i>	Son (<i>pie</i>) = <i>jacasser</i>
(<i>âne</i>) = <i>braire</i>	(<i>tonnerre</i>) = <i>gronder</i>
(<i>chat</i>) = <i>miauler</i>	(<i>tempête</i>) = <i>hurler</i>
(<i>chien</i>) = <i>aboyer</i>	(<i>moteur</i>) = <i>ronronner, vrombir</i>
(<i>cigale</i>) = <i>striduler</i>	(<i>plancher</i>) = <i>craquer</i>
(<i>coq</i>) = <i>chanter</i>	(<i>porter</i>) = <i>grincer</i>
(<i>corbeau</i>) = <i>croasser</i>	(<i>téléphone</i>) = <i>sonner</i>
(<i>dindon</i>) = <i>glouglouter</i>	(<i>cloche</i>) = <i>sonner</i>
(<i>grenouille</i>) = <i>coasser</i>	(<i>flamme</i>) = <i>crépiter</i>
(<i>lion</i>) = <i>rugir</i>	(<i>montre</i>) = <i>faire tic-tac</i>
(<i>loup</i>) = <i>hurler</i>	(<i>neige</i>) = <i>crisser</i> [sous les pas]
(<i>mouton</i>) = <i>bêler</i>	(<i>sable</i>) = <i>crisser</i> [sous les pas]

4. FL 기술의 문제점

우리는 1.-3.에서 FL의 개념과 유형, FL의 중요한 일부 예들을 소개하였는데, 이제 현재까지 Mel'čuk의 작업이 보여주고 있는 바 대로의 FL 기술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 또는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아 보고자 한다. Mel'čuk의 어휘연구작업은, 그 바탕이 되는 이론적·방법론적 원칙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 보다는²⁸⁾ 그것에 입각한 형식화의 틀에 따라 어휘부가 실제적으로 구축된 성과에 더 역점이 놓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론적·방법론적 틀에 대한 언어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면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 표준FL의 보편성 문제

현재까지 작성된 표준FL의 목록은 약 60여 개의 FL을 포함하고 있다. Mel'čuk은 이들 FL에 보편성을 부여하는데, 이 보편성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유형의 언어에서 관찰되는 자료로 그 보편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28) DEC에 제시되는 표제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철저하고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Mel'čuk, I. 1984. Trois principes de description sémantique des unités lexicales du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ECFC* I. pp. 27-32

_____, 1989. Semantic Primitives from the View Point of Meaning-Text Linguistic Theory, *Quaderni di Semantica* 10:1.

Mel'čuk et al. 1988. Principes et critères de description sémantique dans le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ECFC* III. pp. 27-47.

문제일 것이다. 또 한편, 한 언어 내에서도 표준FL로서의 '표준성' 역시 충분한 어휘자료에 근거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Culm, Germ, Imper* 등 일부 FL은 표준FL의 지위에 의심이 갈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들 FL이 형식화하는 어휘관계의 보편성은 추정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앞서 제시된 표준 FL의 정의에 합당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 FL의 설정방법

FL의 설정방법은 앞서 제시된 정의의 적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어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실증적으로 한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표준 FL과 달리 목록이 제한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복합 FL의 경우, 그 한정을 위한 방법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복합 FL은 단순 FL의 규칙적인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고 규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더 명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듯하다.

(1) 단순 FL의 가능한 결합규칙

—*AntiMagn, AntiReal* 등 *Anti*를 내포한 복합 FL이 기술되는데, *Anti*는 어떤 유형의 단순 FL과 결합이 가능한가? 또는 *Oper*를 내포한 가능한 복합 FL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가?

(2) 복합 FL을 구성하는 단순 FL 사이의 관계

—*AntiMagn, IncepOper* 등의 복합 FL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두 단순 FL은 각각 대등한 관계로 합성된 것인가? 그 사이에 위계/종속관계를 가정할 수 있는가?

**MagnAnti*, **OperIncep*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표기상의 규약인가? 또는 두 FL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정을 전제한 것인가?

(1)이 명시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 가능한 복합 FL이 논리적 조합으로 예측될 수 있어, 한 언어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복합 FL을 실제적으로 한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2)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새로이 찾아지는—또는 설정되는—복합 FL의 구성을 원칙에 맞게 분석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FL의 어휘값 한정/통사론적 논의의 확충

FL의 어휘값 한정 연구자의 직관적 의미판단에만 의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판정에 이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험적 의미판단을 확인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식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FL의 어휘값으로 한정되는 어휘요소의 통사적 행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MST 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없다. 이 점은 어휘기술이 어휘단위의 통사적 속성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²⁹⁾

물론 DEC 항목에는 표제어에 대한 매우 정밀한 통사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FL의 어휘값으로 제시된 어휘요소들이 DEC의 표제어 지위를 가진 어휘요소로서 통사적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MST 이론에 비추어 볼 때 Oper 같은 FL의 어휘값으로 기록되는 동사들은 DEC의 표제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³⁰⁾ 더구나 Oper로 형식화될 수 있는 동사들의 한정을 위해서는 이들 동사어휘에 대한 통사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들 동사들이 Oper의 표제어와 함께 구성하는 단문은 일반동사단문과는 다른 특이한 통사적 행태와 속성을 보인다. 이들 동사구문의 통사·어휘적 속성은 대체로 통사부의 규칙으로 표상할 수 없는 국부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휘부 표상이 필수적이다.³¹⁾

따라서 FL기술은 확충된 통사론적 논의와 결합될 때 더욱 타당한 어휘표상이 된다고 볼 때 MST내에서 이와 같은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29) 우리의 지적은 이론이나 방법론의 평가기준에 대한 MST의 기본적 시각과 관계된다. MST에서는 의미·어휘부가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통사부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입장을 택하기 때문에 의미분석이나 어휘기술이 어휘요소의 통사적 행태(MST의 틀에서는 표층통사론에서 표상되는 통사적 속성)에 의거하여 뒷받침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 예컨대 MST에서는 의미논항구조와 통사논항구조를 준별하고, 의미논항구조는 DEC 표제어의 정의형식으로 표상되는데, 그것은 통사론에 전혀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정된다. MST에서 어휘기술의 적절성은, 그것이 근거하는 전체적인 이론적 틀과 마찬가지로, “그 유효성, 단순성, 명료성, 직관적 설득력” 등에 의해 평가된다. (Mel’čuk 1974. *Opyt teorii lingvističeskikh modelei ‘Smyst-Tekst’* p. 32. Nakhimovsky(1990) p. 4에서 재인용). 따라서 FL의 설정방법, 복합 FL의 구성, 통사적 논의의 확충 등에 대한 우리의 지적은 MST에 대한 외부적 시각에서의 문제제기의 성격을 띤다.

30) DEC의 표제어가 MST 내에서 갖는 지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별도로 필요하다. 그것은 DEC의 표제어가 의미표상/심층통사표상을 대응시키는 의미부와 심층통사표상/표층통사표상을 대응시키는 심층통사부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검토는 MST 내에서의 DEC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31) 불어 Oper 동사구문의 통사적 행태에 대한 분석과 기술은 어휘·문법의 연구를 통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24에서 소개한 문헌을 참조할 것.) 물론 DEC에서는 Oper 동사구문의 통사속성의 일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다.

Labor₁₂ (soin) = entourer [N de (A_{poss}) ~s]

Labor₁₂ (traitement) = soumettre [N à ART ~]

표제어술어명사에 선행하는 한정사 및 전치사 형태의 제약, 단수/복수변이의 제약 등의 속성을 동사와 함께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보다 좀더 정밀한 통사속성의 표기가 필요한 것이다.

IV. FL 어휘기술의 확장 and 응용

FL은 한 언어 내에서 가능한 어휘단위 사이의 관계 또는 대응의 상당부분을 단일한 개념에 의거하여 통일적으로 형식화하는 장치이다. 그 관계는 전통적 어휘론 또는 구조어휘 의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넓은 의미의 계열적 관계의 여러 세부 유형 뿐만 아니라, 문장, 또는 그 하위 통사단위 내에서 설정되는 일반적인 의미·통사관계(주어/보어 + 동사, 수식어 + 피수식어)에 입각한 다양한 어휘대응의 양상을 포함한다. DEC는, 특히 FL이라는 수학적 형식언어로, 이와 같은 일반적 관계가 제한적인 어휘결합의 연쇄로만 실현되는 한에서 어휘부 표상이 필수적인 국면을 풍부하고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DEC의 어휘기술은, 언어 collocation라는 좀 막연한 개념으로 지칭되어 온 제한적 어휘결합연쇄를 체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언어학적 방법론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DEC의 어휘기술은, III. 4.에서 일부 지적한 바와 같은 모호한 국면 또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부 중심적인 언어표상모형 MST의 핵심적 성분으로서 깊은 언어학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은 치밀하고 풍부하게 구성된 어휘자료체로서 언어학 연구와 관련된 여러 인접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현대의 중요한 어휘연구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계번역을 비롯한 자연언

32) MST/DEC의 전산언어학적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볼 것.

Fontenelle, Th. 1992. Co-occurrence Knowledge, Support Verb and Machine Readable Dictionaries, *Computational Lexicography COMPLEX '92*. Budapest: Linguistics Institut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Mel'čuk, I. and A. Polguère. 1988. A formal lexicon in Meaning-Text Theory (or How to do lexica with words), *Computational Linguistics* 13(3-4).

Nakhimovsky, A. 1990. A Lexicon-Based Algorithm for Ambiguity Resolution in Parsing, *Meaning-Text Theory* ed. by J. Steele.

Way, A. 1991. The Specification of Environments in the NLP Lexicon. *Computational Lexicography*. Budapest: Linguistics Institut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33) 모국어/외국어 교육을 위한 DEC에 활용에 대해서는 Gentilhomme(1992) 이외에 다음을 볼 것.

Leed, R. and A. Nakhimovsky. 1990. A Lexical Functions and Language Learning, *Meaning-Text Theory* ed. by J. Steele.

34) DEC 틀에 의한 대조연구 또는 이개어 사전의 구상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볼 수 있다.

Lépinette, B. 1989. Vers un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bilingue: bases théoriques et élaboration de quelques articles. *Cahiers de lexicologie* 54-1.

Meyer, I. 1990. Interlingual Meaning-Text Lexicography: Towards a New Type of Dictionary for Translation. *Meaning-Text Theory* ed. by J. Steele.

어처리 영역에 수용되거나³²⁾, 모국어/외국어 교육³³⁾나 단일어/이개어 사전편찬³⁴⁾에 대단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여 DEC 응용의 이러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FL에 의한 어휘표상이 한국어 어휘기술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그것은 한국어 단일어 사전이나, 한국어·외국어 이개어 사전의 항목구성에 필수적인 연어정보를 풍부하게 체계화하는 데 적절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DEC의 FL 표상방법을 한국어 어휘기술에 적용시킨다면 새로운 FL이 고안될 수도 있고, 또 한국어 통사·어휘표현의 특이성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우리는 FL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한국어 어휘자료의 일부를 제시해 보겠다.³⁵⁾

Figur (공포) = [~의] 도가니

(변화) = [~의] 바람

(비밀) = [~의] 장막

(사랑) = [~의] 불꽃, 불길

(승리) = [~의] 월계관

(오해) = [~의] 벽

(절망) = [~의] 구렁텅이

(침체) = [~의] 늪

Func₀ (바람) = 불다

(비) = 오다, 내리다

(소문) = 돌다

(전염병) = 돌다

(침묵) = 흐르다

Magn (감동) = 깊은

(거짓말) = 새빨간

(경쟁) = 불꽃튀기는

(고생) = 죽을

(대결) = 팽팽한

(발전) = 눈부신

(사의) = 심심한

(소리) = 요란한

35) 이 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홍재성(1995)을 참조할 것.

(실책) = 뼈아픈

(약속) = 굳은

Magn (의지) = 굳은, 불굴의

(잠) = 깊은

(재능) = 뛰어난

(전과) = 혁혁한

(조사) = 철저한

(지지) = 열렬한

(침묵) = 무거운

Magn (가난하다) = [가랑이가] 찢어지게

(간사하다) = 여우같이

(둔하다) = 곰같이

(바쁘다) = 눈코 뜰 새 없이

Magn (기다리다) = 눈(이) 빠지게

(느끼다) = 뼈저리게

(드나들다) = 문턱이 닳도록

(듣다) = 귀가 따갑게, 귀가 닳도록

(마시다) = 코가 뻐뻐어지게

(먹다) = 배터지게

(믿다) = 철석같이, 굳게

(바라다) = 간절히

(부탁하다) = 간곡히

(빌다) = 손이 발이 되도록

Oper₁ (결단) = 내리다

(결론) = 내리다, 짓다, 내다

(계획) = 하다, 짜다, 만들다, 세우다

(노력) = 하다, 기울이다

(능청) = 떨다, 부리다

(도둑) = 맞다

(도움) = 주다

(때) = 쓰다

(명령) = 하다, 내리다

(미인계) = 쓰다

Magn (속이다) = 꺾쪽같이

(야단맞다) = 호되게

(약속하다) = 굳게

(일하다) = 뻐뻐지게

(잇다) = 까맣게

([음식]차리다) =

상다리가 휘어지게

(쳐다보다) = 뚫어지게

(칭찬하다) = 입에 침이 마르게

(팔리다) = 불티나게

Oper₁ (실패) = 하다, [~로 돌아가다]

(양심) = 품다, 먹다

(엄포) = 놓다

(영향) = 미치다, 끼치다, 주다

(운동) = 벌이다, 펼치다

(원한) = 품다

(전화) = 하다, 걸다

(정곡) = 찌르다

(주사) = 놓다

(질문) = 하다, 던지다

(반란) = 일으키다

(반론) = 펴다

(봉변) = 당하다

(사기) = 치다

(성공) = 하다, 거두다

(소리) = 지르다

(손해) = 보다, 입다

(시중) = 들다

Oper₂ (검문) = 받다, 당하다

(버림) = 받다, 당하다

(비웃음) = 사다

(욕) = 먹다

(의심) = 받다, 사다

(의혹) = 사다

Degrad(고기) = 상하다, 썩다

(기억) = 흐려지다

(기억력) = 쇠퇴하다, 떨어지다

(꽃) = 시들다

(나물) = 쇠다

(달걀) = 굶다

(밥) = 쉬다

(사태) = 악화되다

Prepar(뚝) = 올리다

(상) = 차리다, 보다

(식탁) = 차리다

(연필) = 깎다

(총) = 장전하다, 재다

(칼) = 갈다

복합 FL의 예를 몇 가지 인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IncepOper₁(연습) = [~에] 들어가다

(관계) = 맺다

(거래) = 트다

IncepFunc₀ (경합) = 붙다

(차등) = 두다

(차질) = 빗다

(꽤거) = 이루다

(핀잔) = 주다

(핑계) = 대다

(훈수) = 두다, 하다

(훤방) = 놓다

Oper₂ (잔소리) = 듣다

(저항) = [~에] 부딪치다

(조사) = 받다

(주목) = 받다

(주의) = 끝다

(핀잔) = 듣다

Degrad (색) = 바래다

(쌈) = 마르다

(쇠) = 녹슬다

(시력) = 떨어지다, 약해지다

(신발) = 닳다

(연필) = 닳다

(옷) = 헐다

- (물외) = 일다
 (바람) = 일다
 (불) = 나다
 (비난) = 일다
 (사건) = 터지다
 (사고) = 나다, 발생하다
 (소문) = 나다
 (싸움) = 붙다, 벌어지다
 (이슬) = 내리다, 맺히다
 (전쟁) = 터지다, 발발하다, 나다
 (차질) = 생기다
 (폭풍) = 일다

Magn + Oper₁ (노력) = 쏟아붓다

(절망) = [~에] 빠지다

(질문) = 퍼붓다

CausOper₁ (창피) = 주다

Magn + CausOper₁ (절망) = [~에] 빠뜨리다

Magn + Func₀ (비) = 쏟아지다, 퍼붓다

(비난) = 쏟_ㅌ아지다, 빗발치다

(추위) = 맹위를 떨치다

(폭풍) = 몰아치다

LiquFunc₀ (화) = 풀다

(오해) = 풀다

AntiMagn (월급) = 쥐꼬리만한

다음에는 한국어 어휘기술을 위해 설정될 수 있는 잠정적인 FL의 예를 들만 들어본다

Modul³⁶⁾: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의 동사와 악기명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FL

Modul (가야금) = 뜯다

(거문고) = 타다

(나팔) = 불다

(바이올린) = 켜다

(북) = 치다

36) 라틴어 *modulari*(악기를 연주하다)로부터 만든 약자.

(피리) = 불다

(피아노) = 치다

Indu³⁷⁾: 몸에 착용하는 행위의 동사와 착용하는 의복, 장신구 등의 명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FL.

Indu (꽃) = 꽃다

(귀걸이) = 달다, 하다

(넥타이) = 매다, 하다

(모자) = 쓰다

(시계) = 차다

(신) = 신다

(안경) = 끼다

(양말) = 신다

(옷) = 입다

(칼) = 차다

한국어 어휘자료를 FL의 틀에 따라 형식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복합표현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는 흥미있는 문제이다. 주로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뜻하는 신체부위명사를 내포한 표현—몸짓이나 표정, 신체부위의 움직임 등을 지시하는—들이 있는데, 앞서 소개한 **Excess-Sympt** 형의 복합 FL로 표상할 수 있을지 또는 다른 형식의 FL을 고안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거리이다.

공포: 간이 콩알만 해지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등골이 오싹하다

경악, 놀라움: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간이 떨어질 뻔하다, 눈이 뒤집히다,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오다

웃음: 배꼽을 잡다, 배꼽이 빠지겠다

증오: 이를 갈다

낙담: 고개를 떨구다

동의: 고개를 끄덕이다

의아함: 고개를 갸우뚱하다

수치: 얼굴을 붉히다, 얼굴이 빨개지다

경멸: 코방귀를 꾸다

불만: 입술을 내밀다, 입을 썩룩거리다

분노: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37) 라틴어 *induere*(몸에 옷 등을 착용하다)로부터 만든 약자.

경청 : 귀를 기울이다

부정, 거부 :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한국어의 FL기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본다. FL Son은 한국어 기술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Son (개) : 짓다

(귀뚜라미) : 울다

(마루) : 빼적거리다

(매미) : 울다

(사자) : 포효하다

(새) : 노래하다, 지저귀다, 울다

(전화) : 울리다

(종) : 울리다

그러나 한국어 기술에는, 다음에서 보이는 어휘관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제2의 FL Son이 필요할 것이다.

Son (개) : 멍멍

(개구리) : 개골개골

(귀뚜라미) : 귀뜰귀뜰

(까치) : 각각

(눈) : 뽀드득

(돼지) : 꿀꿀

(소) : 음매

Son (시계) : 똑딱똑딱

(전화) : 따르릉

(종) : 뽕뽕

(쥐) : 짹짹

(차) : 부르릉

(참새) : 짹짹

(호랑이) : 어흥

이와 같은 동물이나 또는 사물이 내는 전형적인 소리의 상징어(의성어)를 어휘값으로 취하는 FL을 표준 FL Son과 어떻게 구별하여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겠다. 표준 FL Son은 주어로 사용되는 동물/사물명사 표제어와 동사를 대응시키므로 통합적 FL로 특징지을 수 있겠으나, 또 다른 Son은 넓은 의미의 계열적 FL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술어명사 약속₁³⁸⁾의 잠정적인 FL표상의 단편을 보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약속과 제한적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의 가능한 범위나 그 결합관계가 보여주는 의미가 FL에 의하여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지가 예시될 것이다.

약속₁

Oper₁ : 하다

Oper₂ : 받아내다

38) 약속₁은 다음 예문에 사용된 약속₂와 구별된다: 나는 오늘 철수와 약속₁이 있다.

LiquOper₁ : 취소하다

Real₁ : 지키다

AntiReal₁ : 어기다, 깨다, 파기하다

이와 같은 어휘대응관계가 어휘부에 표상되어야 할 언어학적 근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어휘기술이 한국어 사전,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사전이나,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 외국어 이개어 사전의 항목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어 술어명사를 DEC의 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FL 표상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보이는 술어명사 전화와 그것에 대응되는 동사어휘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여 체계화할 것인지 어렵고도 흥미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1) 철수는 영희에게 5시에 만나자-(고 + 는) 전화를 (하였다 + 걸었다).
- (2) 영희는 철수에게서 5시에 만나자-(*고 + 는) 전화를 받았다.
- (3) 영희에게도 철수에게서 5시에 만나자-(고 + 는) 전화가 (왔다 + 갈 것이다).
- (4) 영희에게는 아직 전화가 안 되었다.
- (5) 영희에게는 아직도 철수에게서 만나자-(고 + 는) 아무런 전화가 없다.
- (6) 철수는 영희-(와 + *에게) 전화를 끊었다.

참 고 문 헌

- Desclés, J.-P. 1989. La linguistique contemporaine, *L'Univers Philosophique* dir. par. A. Jacob. pp.1351-1361. P.U.F.
- Fuchs, C. et P. Le Goffic. 1992. *Les linguistiques contemporaines* ch. 9. pp. 105-111. Hachette.
- Gentilhomme, Y. 1992. Panorama sur le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Retombées pédagogiques, DEC du français contemporain III . pp.95-120.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Mel'cu k, I. 1988a.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 *Lexique* 6.
- _____. 1993. La phraséologie et son rôle dans l'enseignement/apprentissage d'une langue étrangère.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 92.
- _____. 1988c. *Dependency Syntax: Theory and Practice*. Albany, N.Y.: The SUNY Press.
- _____. 1988b. Paraphrase et lexique dans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Vingt ans

- après. *Cahiers de lexicologie* Nos 52-53.
- Mel'čuk et al. 1984, 1988, 1992.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II, III.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Montréal.
- Nakhimovsky, A. 1990. Word Meaning and Syntactic Structure: Some Comparative Notes. *Meaning-Text Theory* ed. by J. Steele.
- Ramos, M.A. 1991. Verbes supports et fonctions lexicales,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XV: 1.
- Sabah, G. 1990.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le langage* Vol.I.(2^e éd') pp.146-155. Hermès.
- Steele, J. ed. 1990. *Meaning-Text Theory: Linguistics, Lexicography and Implications*. Ottawa etc: University of Ottawa Press.
- Steele, J. and I. Meyer, 1990. Lexical Functions in an Explanatory Combinatorial Dictionary: Kinds, Descriptions and English Examples. *Meaning-Text Theory* ed. by J. Steele.
- 정수영. 1992.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속에서의 어휘기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재성. 1993.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과 사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81집.
- . 1995. 어휘함수 개념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 해방 50주년—세계속의 한국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Résumé》

Description du lexique français dans le modèle Sens ↔ Texte

Hong Chai-Song

Nous nous proposons dans article d'examiner la description du lexique français réalisée dans la perspective du modèle Sens ↔ Texte d'I. Mel'čuk, en nous limitant à l'un de ses aspects: représentation des informations lexicales au moyen de l'outil conceptuel qu'est la fonction lexicale dans le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DEC(FC). L'objectif de ce travail est double: d'une part, évaluer la valeur

des recherches lexicales du type DEC en caractérisant les principes théoriques et méthodologiques qui y sont mis en oeuvre et d'autre part, rechercher la possibilité d'appliquer à la description du lexique coréen ce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ar FL.

A cette fin, nous avons d'abord présenté dans leurs grandes lignes le modèle Sens ↔ Texte et son lexique: DEC. Ensuite nous avons analysé les principaux aspects de la représentation des propriétés lexicales, fondée sur le système des FL. Pour finir, nous avons donné un échantillon du lexique coréen décrit dans le cadre de la représentation par FL, tout en évoquant quelques problèmes spécifiques à la description du coréen.